

#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시급”

### 전북인재개발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 건의서 행안부 전달

전북도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발단은 지난달 15일 경기도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지방5급 승진후보자 기본교육과정'의 자체개설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승인 요청하면서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1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자체교육을 요청하면 자체운영 지속성, 교육수요, 교육기간, 국정과제 등 교과목 평성기준 등 적정성 검토 후 4월중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전북도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완주군과 완주군민 등은 경기도의 이같은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며 행안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등을 찾아 항의하고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국지역 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5급 승진후보자 교육 훈련은 공직사회의 핵심간부를 양성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국정철학과 정책의 일관성 있는 확산과 공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치인재원에서 통일된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하며,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 본연의 기능에도 충실해야하기 때문에 경기도 요청을 반드시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령 행안부가 경기도의 승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차후 다른 시도에서도 자치분권, 경비절감, 지역산권 활성화 등을 이유로 자체교육을 신청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는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 없이는 이후에도 시도 간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지역주민 간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는 불씨를 안고 가는 것이다.

따라서, 도는 차제에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논란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자치인재원으로 단일화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행안부에 건의했다.

신동원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장은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행안부, 자치인재원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전북출신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들을 방문하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도 사안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전북도의 입장에 적극 공조하는 등 지원 의사를 밝혔다. /김진성 기자



보궐선거 투표에 선 줄

4.3 전주시라선거구 전주시의원 보궐선거 날인 3일 완산구 서신동 제1 투표소 서신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지를 받고 있다.

## 전북도, 민방위경보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전북도는 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시·군 및 읍·면·동 민방위경보 담당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민방위경보업무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보시스템 정비운영 교육뿐만 아니라 단발기의 구조

설명 및 조작방법, 장애조치 등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오동작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위기사태에 대한 경보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능력 향상과 경보시스템의 대응체계 숙달로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열었다.

특히 민방위경보는 민방공경보 뿐만 아니라 재난방송 전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담당공무원들에게 업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긴급사태 시 유연하고 차질 없는 상황 처리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성 기자

## 한국형 전기차 생태계 구축 '총력'

### 자동차융합기술원 - 나노스 전기, 기술개발 업무협약 체결

(재)자동차융합기술원(원장 이성수)은 4월 3일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나노스(주)대표(양선길)와 전기·자동차 분야의 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형 전기차의 개발과 새만금에 전기차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연구개발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상용차, 자율주행차 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투자와 고용창출을 위한 상호협력, 보유장비 및 시설물 공동 활용 등 많은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추진한다.

이날 기술원과 협약을 체결한 나노스(주)는 지난해 7월 전북도, 새만금 개발청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10만평에 1,200억원을 투자하여 특장차 및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투자를 약속한 바 있었다.

또한 지난 3월 중국의 체리자동차와 수소 전기자동차 유통 및 한국 제조공장(SKD) 설립에 관한 협약을 맺은 바 있어, 본 협약은 새만금에 투자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수 원장은 "이번 협약은 전기차 생산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나노스(주)와 전북도 등이 맺은 새만금 투자 계획이 한걸음 더 나아가 결실을 맺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진성 기자

다"면서, "내년부터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추진이 예정되어 있어 전기차 제작기업과 부품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비교우위 분야를 발굴하고 수출품목으로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선길 나노스(주) 대표이사는 "세계 시장의 흐름과 우리정부의 정책이 맞춰 회사의 미래성장동력을 4차산업 핵심인 수소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선정하고 전문가 영입과 기술검토 등 역량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면서, "체리자동차와 단계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첫 단계로 새만금에서 조만간 전기상용차가 생산될 수 있도록 민간의 준비를 다하고, 기술원 및 체리자동차와 협력하여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일본뇌염 발생 예측... 예방접종·방제요령 준수 당부

전북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지속적인 감시와 효과적인 방역대책 수립을 위한 일본뇌염 예측사업을 4월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일본뇌염 예측사업은 일본뇌염의 주요 매개종인 작은빨간집모기 출현과 발생밀도를 감시하는 사업으로, 4월부터 11월 초까지 전주 1개 지점에서 매주 2회에 걸쳐 채집한 모기 중 작은빨간집모기의 첫 출현과 발생 밀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주 채집된 모기 분류 결과는 질병

관리본부로 보고되어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를 처음 발견한 때 주의보를 발령하고, 일본뇌염 환자 발생 또는 매개모기의 밀도가 높거나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분리된 경우에는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는데 활용된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은 무증

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뇌염의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유택수 원장은 "최근 전북에서는 일본뇌염 환자 발생이 없으나 일본뇌염 주의보 발생 시기가 2015년 이후 빨라짐에 따라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은 표준일정에 맞춰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야외 활동 시와 가정에서 모기 회피 및 방제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 북한 산림복원 도와 남북화해 견인 '앞장'

### 전북도·아시아녹화기구, 대북산림협력사업 업무협약 체결

전북도는 3일 서울 여진도회관에서 북한의 산림복원을 위해 아시아녹화기구(운영위원장 고건 前총리)와 '대북 산림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작년 제1·2차 남북산림협력 분과 회담에서 산림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으로 북한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당국 간 합의함에 따라, 양 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북산림협력 사업에 공동으로 협력하여 북한의 산림복원 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이다.

협약을 체결하는 '아시아녹화기구'

는 한반도 녹화(Green Korea Project)를 위해 결성된 기구로, 그동안 북한에 임농복합시범단지 조성, 남북한산림협력을 위한 종자교환 등 꾸준히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간 기구이다. 이날 양 기관은 북한의 황폐화되고 있는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인도적대북지원 참여로 남북화해 및 평화분위기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대북 산림협력사업의 구상 ▲북한 양묘장 현대화사업 등 정부에서 정하는 산림협력사업 지원 ▲대북 산림협력사업을 위한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교류 등을 정하고 있으며, 대북 산림협력

사업의 추진은 남북협력사업의 진전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참여주체와 범위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남북교류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 양묘장 현대화 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농도(農道)인 우리도와 입지여건이 비슷한 황해북도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황폐화된 북한의 산림을 복원하는 것은 남북화해 및 한반도 평화에 마중물 역할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아시아녹화기구와 함께 대북 산림협력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